

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에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 3시 미사후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구역장회의 (첫째 토) 3:00 PM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학부모회 (셋째 일) 1:00 PM 대건회, 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상회, 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이나시오회, 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회, 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토마스회, 30대 (셋째 토) 4 PM	순교자들의모후 (화) 4:15 PM 사랑의 샘 (화) 6:00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평화의 모후 (토) 3:30 PM 자비의 모후 (토) 3:00 PM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울뜨레아 (둘째 일) 꾸리아 (셋째 일) 1:00 PM 쉘기도 (2,3주일) 10시미사후 청년회 (토) 6:00 PM 교사회 (일) 9:15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00 PM 이나시오CLC (월,수,목) 8:00 PM 재속복자회 (셋째 일) 4:00 PM 성찬봉사회 (첫째 금) 8 PM, Zoom	총구역장 214-597-5553 알렌, 맥키니 972-206-7009 캐롤튼 213-344-9129 코펠 817-946-9168 N. 코펠 972-743-9323 던컨빌 469-328-3831 갈랜드 972-795-9706 얼빙 817-919-3050 E. 프리스코 972-400-2882 E. 프리스코 214-436-3648 W. 프리스코 469-831-6531 E. 플레노 214-316-0701 W. 플레노 818-590-3442 리차드슨 214-770-4047 벨리랜치 214-470-8747

### 교우 업체 소개

<p>캐롤튼 (214) 483-3838 24hr (469) 774-9669</p>	<p>Tel (214) 461-0425 1111 Kinwest Pkwy #150 Irving, TX 75063 김하운 소피아 DDS</p>	<p>BO Na Lee, MD (214) 656-5388 (문자 가능함) 6957 W Plano Pkwy #2300, Plano</p>	<p>헤어 (수지원장) 972.800.1063 스킨 (아그네스) 510.449.6933 첫 방문 남자 헤어컷 \$15 11434 Emerald St. #107 Dallas</p>
<p>안나 케어/은혜복지센터 972-506-0177, 토(Sat 운영) (노인복지 전문기관, 자원봉사가능) KAS/비영리 한인가족지원센터 www.annacaretx.com</p>	<p>리딩타운 프리스코점 945.276.0392 www.readingtow.com 8018 Preston Rd. Ste 505, Frisco</p>	<p>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p>	<p>*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p>
<p>"K-12, SAT/ACT, AP, Essay" Flower Mound Center 이수미 한나 469-231-2002</p>	<p>이상학 스테파노 (972) 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p>	<p>새차는 BMW 중고차는 Any Brand Mobile (480) 465-3853 bmwofdallas.com</p>	<p>박성아 소화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p>
<p>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p>	<p>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p>	<p>미술   영어   수학   테스트 준비   스템 Carrollton Campus 972-245-7914</p>	<p>2 to 5 Years Old 임은희 요안나 상담: (682) 417-4455 유치원: 월~금, 생일파티: 토/일</p>
<p>7 days open (972) 245-2665 *이전 장소* "동천홍과 맛객 사이 북도 끝"</p>	<p>(972) 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p>	<p>Tel 972-693-6247 코마트 옆 일요일은 예약만 받습니다.</p>	<p>설치 및 수리 (주택 /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p>



#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 ST. ANDREW KIM CATHOLIC PARISH



2026년 6월 21일

연중 제 12주일

제 260024호

### 오늘의 전례

**[제1 독서] 예레미야서 20,10-13**

**[화답송] 시편 69(68),8-10.14와 17.33-35(© 14ㄷ 참조)**

◎ 주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 당신 때문에 제가 모욕을 당하고, 제 얼굴이 수치로 뒤덮였나이다. 저는 제 형제들에게 낯선 사람이 되었고, 제 친형제들에게 이방인이 되었나이다. 당신의 집을 향한 열정이 저를 불태우고, 당신을 욕하는 자들의 욕이 저에게 떨어졌나이다. ◎  
 ○ 주님, 저의 기도가 당신께 다다르게 하소서. 은총의 때이옵니다. 하느님, 당신의 크신 자애로 제게 응답하소서. 당신은 참된 구원이시옵니다. 주님, 너그러우신 자애로 저에게 응답하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를 돌아보소서. ◎  
 ○ 가난한 이들아, 보고 즐거워하여라. 하느님 찾는 이들아, 너희 마음에 생기를 돋우어라. 주님은 불쌍한 이의 간청을 들어 주시고, 사로잡힌 당신 백성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하늘과 땅아, 바다와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아. ◎

**[제 2 독서] 로마서 5,12-15**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진리의 영이 나를 증언하시고 너희도 나를 증언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0,26-33**

**[영성체송]**  
 주님, 눈이란 눈이 모두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은 제때에 먹을 것을 주시나이다.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790	423	521, 673, 747	791

미사 시간 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일요일	10:00 AM 12:00 PM (영어) 3:00 PM
평일	화, 목	7:30 PM	
	수, 금	10:00 AM	

성사 안내	고해성사	미사 30분전 - 5분전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 신청	
성시간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녀	장명화 수산나 김민혜 연희마리아
사무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스	972-484-4628
주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 · 목	12:30 PM - 8:30 PM
	수 · 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교육정보	
예비자교리	일 11:00 AM-12:15 PM
성경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 요한 부제
성경공부반	수 11:00 AM 장 수산나 수녀
성경공부반	수 11:00 AM 박 비비안나
성경100주간	수 8:00 PM, Zoom
성경100주간	금 8:00 PM, Zoom
거룩한 독서	화 10:00 AM, Zoom
거룩한 독서	수 8:00 PM, Zoom
주일학교 Youth	일 10:00 AM - 11:15 AM
한국학교	토 9:30 AM - 12:30 PM

# 강론



연중 제12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사참례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제가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에 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주일 미사 참례 인원이 700명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900명이 넘는 때가 많았고, 지난 부활 대축일에는 1,155명이 미사에 참례했습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교우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가대 모임에서도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원이 늘어서 연습실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새로운 성가를 배우고 싶는데 연습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교포 사목의 현실은 점점 고령화되고, 봉사자는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은 오히려 봉사자가 늘고 있으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느님의 은총이고, 교우들의 따뜻한 마음 덕분입니다.

감사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성당 경계를 이루던 나무 몇 그루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봉사자들이 나와서 퇴비를 뿌리고, 죽은 나무를 뽑아내고, 다시 새 나무를 심었습니다. 예전에 '마징가 제트'라는 만화영화가 있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기면 언제나 나타나서 도와주던 정의의 로봇이었습니다. 우리 본당에도 그런 형제님들이 계십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묵묵히 나타나서 땀 흘리며 봉사하는 분들입니다. 지난 Mother's Day를 앞두고 형제님들은 어머니들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준비했습니다. 형제님들이 모여서 고기를 썰었고, 정성껏 구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님들을 위해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성모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아,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은 참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인 1996년입니다. 봉성체를 가면 만 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학교에 갔다 오다가 넘어졌는데, 그것이 큰 병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점점 근육이 약해져서 걷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휠체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첫영성체를 하고 성체를 모시면서 늘 기뻐했습니다.

글쓰기를 좋아하던 친구는 어느 날 제게 짧은 시 한 편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 세상은 별들이 많은 은하수 같은 것입니다./ 별들이 많기에 밤하늘이 아름다울 수 있지만/ 그 뒤에는 우주라는 어두운 하늘이 있습니다./ 별들이 밤하늘이 있기에 아름다운 것처럼/ 이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기에/ 그것만으로도 이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시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몸은 자유롭게 못했지만 마음은 . . . 누구보다 맑고 따뜻했던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를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때문에만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 때문에만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본당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당 청소를 하는 분들,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분들, 주차 안내를 하는 분들, 성가대로 봉사하는 분들, 힘든 교우를 위로하는 분들, 말없이 헌금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시련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이단도 있었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신앙인이 고향을 떠나 깊은 산속에 교우촌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사제를 만나기 어려웠고, 미사를 드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화려한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훌륭한 제도 때문만도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교자들은 별처럼 빛나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103위 성인과 124위 복자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오늘 제1독서에서 예레미야 예언자는 모함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 자신의 억울함과 고통을 말했습니다. 시련은 예레미야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십니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손해 보는 일도 있고, 외로운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사랑 때문에 지는 십자가라면 기꺼이 질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입니다. 누군가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입니다. 묵묵히 감당하는 희생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충만히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 많은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세상은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있는 것만으로도 아름답습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봉사하고, 기쁘게 나누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더욱 빛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6/11일 까지  
목주기도 집계 70,505단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강경순(요안나), 기길자(루치아), 김선미(소피아), 김성희(글로리아), 김연우 제이든(요셉), 김외분(프란체스카), 김지연, 마하해(스텔라), 서지연(로사), 손현식(미카엘), 손현욱(가브리엘), 안길승(가브리엘), 양영도(이나시오), 엄찬길(찰스), 윤지희(미카엘라), 이복순(카타리나), 이상원(스테파노), 이예린(세실리아), 임원욱(크리스티나), 전용환(요한), 정상욱(젬마), 정성문(요한), 차형례(데레사), 하정희(올리아), 한재민(야고보), 허순희(젬마)

# 공 지 사 항

2026년 사목 목표  
1. 그리스도의 은총 안에서 지난 50년의 감사와 기쁨을 새깁니다.  
2. 성령의 친교로 하나 되어 서로를 세우는 공동체를 이룹니다.  
3. 하느님의 사랑을 담아 친교실 확장과 사제관 신축을 준비합니다.  
4.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역사·영성·문화를 새롭게 정리합니다.  
5. 감사·친교·나눔의 삶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합니다.



은총훈 세례자 요한 신부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축하식 : 6/21(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전신자 떡나눔이 있습니다.

● 성경 백주간 2기 수료식  
하느님의 은총으로 2023년에 시작한 성경 백주간 2기 그룹이 3년에 걸친 모든 과정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수료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더 많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하며 하느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은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일시 : 6/21 (일) 10시 미사  
대상자 : 길영주 체칠리아, 김원희 아브라함, 김동환 제오르지오, 김춘자 모니카, 박상훈 미카엘(GA), 유하나 미카엘라(GA), 윤영희 세레나(GA), 이숙 클라라, 이소라 헤르미온

- 제 27기 사목회 해단식  
지난 2년 동안 수고해주신 27기 사목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 28기 사목위원 임명식은 7/5(일)에 있습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 유해 순회 가정 모집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의 일환으로, 희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성인 유해 순회를 진행합니다. 일정상 선착순 60가정에 한하여 신청 받습니다.  
접수 기간 : 7/26 (일) 까지  
장소 : 사무실 신청  
문의 : 유해 순회 집행위원  
김 루시(972-795-9706), 최 제니퍼(214-404-8746), 김 다윗(214-454-2653)  
유해 순회 기간 : 9/20(일) - 11/28(토)
- 청소년 복사단 모집  
대상 : 3학년~6학년  
신청 방법 : 사무실 신청서 작성  
신청 마감 : 8/2 (일)  
문의(문자) : 이상학 스테파노 501-366-3464  
박경호 바오로 615-587-5008
- 50주년 로고 전신자 투표 안내  
총 12점의 로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50주년의 얼굴이 될 작품을 직접 뽑아주세요!  
투표기간, 장소 : ~6/30(화), 도서관 앞 칠판  
방법 : 각 로고당 1표씩 가능 (1인 1회 제한)  
시상 : 7/5(일) 10시 미사 (입상작 선물 및 입상작 제외 전체 참가상)
- '50주년 기념 사진전' 준비팀 모집  
본당 설립 50주년을 맞아 '50주년 기념 사진전'을 준비합니다. 사진 선별, 전시 디자인, 패널 제작 등 사진전에 함께하실 봉사자를 찾습니다. 사진과 디자인에 관심이 있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나누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활동 기간 : 2026년 7월 ~ 11월 중순  
개막 : 2026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예상 봉사 시간 : 월 3~4시간 내외  
문의 및 신청 : 214-406-3908  
50th.team@dallaskoreancatholic.org
- 새신자분과 봉사자 피정  
주제 : '좋은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필리 1,6)  
일시 : 6/28 (일) 2pm - 5pm  
대상 : 새신자분과 봉사자, 봉사에 관심있으신 분  
신청 : 6/27(토) 까지 사무실  
장소 : C114
- 징검다리 청년회 총회  
일시 : 6/27(토) 6pm  
청년회장 후보 추천 기간 : ~ 6/19(금)  
회장 후보는 신부님과 면담있습니다.  
면담 일정 : 6/20(토) - 6/26(금)  
추천, 문의 : 한승용 스테파노 469-682-5442
- '대한민국 vs 남아공' 북중미 월드컵 3차전 단체응원  
일시 : 6/24(수) 8pm  
장소 : 친교실 (사전 접수 없음)  
함께 나누고 싶은 음식을 각자 가져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27년도 달력 광고 모집  
광고비 : 1년 \$350 선물  
신청 : 사무실 (선착순 마감)
- 여름철 복장 안내  
성당은 하느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름철에도 미사 참례 시 지나치게 짧거나 노출이 심한 복장(민소매, 슬리퍼, 짧은 반바지)은 피하고, 단정하고 품위 있는 옷차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헌금		교무금					
김현주(500), 백기선(200), 권상훈(50)		김현주, 이상학, 조성환, 손완중, 김갑용, 백기선, 한원희, 고광범, 정행삼, 배수인, 조성호, 황종준, 강경순, 임창민, 김진, 강귀창, 박태신, 김정훈(2), 한정관, 염광수, 윤철수(2), 주상우, 김부천, 이강원, 한미경, 서준호, 박종찬, 변요섭, 이병규, 전기숙, 정연희, 백혜란, 김순영, 양용예, 서경옥, 박주원, 권무삼, 이홍재, 권명수, 최관호, 박수근, 김봉현, 송정훈, Joaquin Noyola, Micha Kaulrich, Angela Han, Mi Kyong Britt, Jason Lee, Chong Suk Avila					
50주년 봉헌 헌금 이성의(1,000) 8학년 견진반(31), 익명(20), 익명(20), 익명(20)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117,463.96	건축	\$750.00	교무금	\$6,430.00	주일 헌금	\$5,113.00
일반 계정	\$294,259.58					주일 총액	\$11,543.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32 명	수 43 명	목 34 명	금 67 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81 명	10시 437 명	12시 240 명	3시 63 명		주일 합계	821 명